

노계를 처분하고 입추를 중지하자

일 시 : 1974. 11. 15 (금)
 장 소 : 대한양계협회 회의실
 참석자 : 유 중 래 (대한양계협회 경북지부부회장)
 승 병 선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장)
 윤 경 증 (대한양계협회 부회장)
 최 상 천 (제호회 전 총무)
 심 준 식 (제호회 총무)
 김 성 오 (동부선린신용협동조합 전무)
 김 남 기 (대한양계협회 전북지부 상무이사)
 이 관 범 (대한양계협회 전남지부 총무)
 조 두 현 (대한양계협회 부산경남지부 총무)
 사 회 : 오 세 정 (대한양계협회 부회장)
 기 록 : 김 수 문 (월간양계 기자)

한동안 양계업계는 숨을 돌리는 듯 하더니 금년까지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 내다보던 양계경기가 상상이외로 다시 고전을 겪고 있다. 사료가격의 인상기미와 계란값의 폭락으로 당황하는 채란업자의 진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습해야할 것인가? 채란업자들의 대담을 통해 현황 당면문제, 경기회복을 위한 결의사항 등, 주요 사항을 발췌 수록한다. <편집자 주>

사회 : 요즈음의 계란시세는 추석이후부터 하락하여 산란계의 사료값도 안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요인으로 소비위축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외 다른 요인은 무엇인지? 또한 사료값은 12월하순~1월부터는 15%정도의 인상이 예상되는데 사료값인상에 따른 사료물량조절, 품질저하우려 등으로 양계업자들에게 더욱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는 사료난 때문에 닭숫자를 줄이고 초식가축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양계업계의 전환기가 오지 않을런지? 이런 때일 수록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각 지역의 현실정은 어떠한지 유조합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체화된 양의 농협비축사업을 바란다

유증 : 대구지방에서는 난가하락문제로 두어 번 모여서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은 결의를 했습니다.

첫째 : 계란가격이 싸다는 캠페인을 벌리자.
 전번에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자가격이 비쌌던 때처럼 가격이 하락한 지금도 구멍가게에서 25원씩을 받고 있기때문에 소비에 영향이 있습니다.

둘째 : 노계를 빨리 처리하도록 하자. 대구지방에서는 육계가격안정을 위해 4,000만원을 비축하고 있지만 산란계 노계처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위시해서 전국의 노계 도태계가 150만~200만수로 보는데 이것을 하

루 속히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농협에서 계란비축사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농협에서 안될 때는 양계업자 스스로라도 싸게 팔지 않도록 비축해야 합니다.

넷째: 부화중단을 실시하도록 하자.

대구지방에서는 11월 20일부터 한달간 부화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이 문제입니다.

대구지방에서는 이상과 같은 결의를 한바 있지만 부화중단은 부화업자가 하던 않던 간에 양계업자가 기르지 않도록하는 운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서울근교에 있는 양계업자들에 게도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사회: 대구지방에선 유조합장님의 열의로 좋은 방안을 찾아 결의사항을 채택하여 실천중이라는 좋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지방은 어떤지 이관범총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관: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는 요즈음에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가격을 업자들에게 통보하여 덤핑을 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시세에서는 다소 더 받을 수 있지만 내려가는 시세에선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대란 190원씩을 받고 있는데 하락세에선 장사꾼들한테 농간을 당하지 않도록 서울이나 대구 등 큰 지역에서 가격조절에 힘써 주어야 하겠습니다.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지역적, 전국적으로 생산자들이 뭉쳐야 하겠습니다.

사회: 광주지방에선 비교적 다른 곳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역시 생산자들의 결속의 영향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엔 전북지부 김남기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들과 생산업자가 협조하여 가격 유지에 힘쓰고 있다 <전주>

김남: 전북지방에는 성계 약 35,000수에서 25,000여개의 알을 생산하고 있는데 5만개 정도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수가 약 25,000

~30,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계란상인(큰상인 8명)이 서로 알력이 있어 가격이 맞지 않을때 외부에서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인들과 몇차례 접촉하여 전주지방에서 부족수만 들어오되 가격은 전국 최고시세에 의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상인들은 주당 10만원씩 5백만원으로 계란조합을 구성하여 현재 190원을 기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28명의 체란분과위원회를 열어 상인들과 협조하여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간오지가 되어 지역적으로 떨어진 곳엔 일률적인 가격이라면 상인들이 꺼리고 있는데 이런때는 전체적인면에서 양계업자가 약간 양보를 하고 상인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차이를 두어 상인들에게도 최소한도의 보장을 주는 방향으로 하여 전국시세보다는 밀로 받지말자는 생산자의 지역적인 단합이 필요합니다.

사회: 다른곳에서 염가로 생산하여 그곳까지 보급을 한다고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량으로 보아서 많지않은 량이나 상인들과 협조가 잘되고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다음은 부산지구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란 매주 8만개씩 일본수출 절충중

조두: 부산에서도 노계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육계가격은 kg당 340원 계란은 한개에 22원에서 18.50~19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서울 대구 등 많이 생산하는 곳에서 자체소비를 하고 외부에서 계란이 들어오지만 양은 다면 별 지장이 없으리라 봅니다.

부산에선 매주에 8만개의 계란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 진다면 다소 나아질 것 입니다.

계란소비는 어류와 비교되어서 어류가 싸면 닭고기나 계란을 먹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어류값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소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지금까지 지방소식을 들어보니 서울경기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가 제일 타격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

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장이신 승병선 선생님께서 오류동지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지구 양계업자들의 단결에는 공통된 이상, 목적의식, 계획, 이익을 갖고 상호신뢰할 수 있는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승병 : 전주지방의 경우 산란계 숫자가 총 35,000수라면 서울지방의 한사람이 사육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경우는 생산, 유통과정 등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지방엔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양계업자끼리 단합이 잘 되지않고 있어 하락세에 있을때는 1인이 계란 20만~30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욱 장사꾼들한테 곤경을 치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오류동지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곤경을 겪는 대규모업자들이 오히려 협조를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양계업자의 단합이란 어려운 작업임을 느꼈습니다. 공공사회를 영위하기 위해선 사회적인 훈련이나 어느정도의 수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협조를 할 수 있는 단결의 요소는 ①공통된 이상 ②공통된 목적의식, ③공통된 이익, ④공통된 계획을 가지고 ⑤상호신뢰를 하므로써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여 양계업자가 단합이 되어 가격이 안정되면 계란이 다른 물가에 비해서 월등 싸기 때문에 소비해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 : 항상 모임을 가질 때마다 거론되는 양계업자의 단합에 대하여 좋은 이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불경기의 원인을 승선생님께서선 어떻게 보십니까?

계란값 하락은 전체업계의 불경기에 맞이한 연탄사정 김장철등의 경제적 자극으로 소비위축에 영향

승병 : 축산물은 소비하는 층을 보면 고기를 먹는층은 부유층이고 계란 소비자는 서민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민층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할때 계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업계가 불경기로 인하여 우선

급급한 연탄사정이나 김장겨정에 신경을 쓰다보니 소비는 자연히 둔화되고 따라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 : 역시 불경기의 영향이 있고 아울러 정치적인 요인, 학원사태등으로 도시락용계란소비에도 영향이 있는듯 합니다. 다음엔 천호동지구는 어떤지 천호동 계호회 최상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금고를 설치하여 가격유지에 힘쓰자

최상 : 천호동지구는 계통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청량리지역에 많이 체화되어 있는데 별 묘안이 없는것 같습니다. 오로지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사료에 조금씩 붙이든지 하여 축산금고를 설치하여 대구축협 처럼 가격유지에 힘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런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사육자를 위해서 염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육자가 사료업이나 기타업종의 안정을 갖어다 주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기업이 성숙하면 자기산업이 아니라 사회사업이라는 신념을 갖어야한다고 봅니다.

사회 : 천호동 계호회 심준식 전무님께서선 다른 말씀이 없습니까?

심준 : 계란시세 조정에는 큰업자가 영세업자보다 더 신경을 얹는것 같습니다. 큰업자가 먼저 싸게 내기 때문에 영세업자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양계협회에서는 대군업자들을 불러 그런문제를 타진했으면 합니다.

사회 : 다음엔 협동 조합을 통해서 무언가 단합이 잘 되고 있는 선린촌지구는 어떤지 김성오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활동을 통해서 소비를 증대시키자

김성 : 천호동지구 최상천 선생님께서 양계경기 안정을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제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본 문제 해결은 당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린촌의 경우 한 조합

으로 묶어보아도 법적인 규제는 어렵습니다. 이런때 일 수록 ①소비를 증대 시키고 ②협회에서는 보도기관을 통해서 쌀 계란을 사먹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사회: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각지역별 현황과 문제점을 들어 보았습니다. 현재 곤경에 처한 양계업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부화중단, 입추중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지역적 전국적인 양계업자의 단합, 기금설치문제, 상인들과 협조타협 등 여러가지 좋은 방안들이 나온것 같습니다. 홍보사업을 하는 문제는 서울지방의 경우 매스콤을 이용하는데 있어 단수가 높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않으나 양계협회에서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각 지방에서도 지방신문판을 이용하든지 다른방법으로든 현실을 소개하고 계란소비 증대를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런기회에 무의미하게 대담으로 끝내지말고 좋은 방안들을 모아서 결의사항을 채택해 봅시다. 그럴 양계업계가 당면한 문제점과 앞으로 해야할것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의사항

- 가)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난가유지 방법으로
 1. 노계를 속히 처리하자.
산란율 65%이하는 모두 정리하자.
 2. 채란업자들은 일제히 입추를 중지한다.
(12월1일부터 1월말까지 2개월간 입추를 중지한다.)
 3. 부화업자들의 입란중지를 촉구한다.
 4. 홍보사업으로 어려운 실정을 소개하고 유통구조 개선 캠페인을 벌인다.
 5. 유통과정에서 거래방법 개선을 촉구한다.

나) 앞으로의 할 일

- 1. 사료품질 비교시험을 실시하자.
사료품질 보장을 위해 지역별로 사료비교 사양시험을 하자.
- 2. 축산기금의 설치에 힘쓰자. *



사 료 첨 가 제
예 방 제
치 료 제
백 소 독 신
약

신속배달발송

대한양계협회 전남지부
광주지구 부로일러협회
사무실

事務室
光州市 西区 西2洞 47~8
(대창석유앞)

☎ ③ 1 3 2 3

삼성가축약품상사

三星家畜藥品商社

大	韓	新	藥
成	成	生	物
國	國	藥	材
韓	國	化	材
太	平	藥	料
S	F	科	等
의	一	科	藥
中	央	家	畜
韓	國	高	一
三	星	新	藥
各	種	獸	醫
全	南	代	理
			店